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19년 12월 8일 (첫째 주일)

성경본문 : 로마서 8장 26-30절

설교제목 : “협력하여 선을 이루심”

성숙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는 과정이자 지표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입니다. 교리적 신앙이 아닙니다. 이론적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살아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이전의 삶의 방식대로 살 수 없습니다. 바울은 **엡4:17**에서,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의 ‘마음’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누스’입니다. ‘생각’, ‘지성’이라는 뜻인데, 세계관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옛 사람의 방식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롬12:2**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한 말씀과 같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의 삶에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과 세상의 삶의 방식이 충돌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는 고난과 불편함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고난없이, 불편함없이 살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과 충돌없이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감수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러한 불편함과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것을 감내하는 것이 성숙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불편함과 고난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바울은 ‘고난의 수고보다 장차 주어질 영광의 결과를 바라보라’고 합니다.(롬8:18)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잠시 고난일 수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자가 받을 영광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고난의 때에나, 힘들 때면, 대개 없는 것만을 봅니다. 그러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안보입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원리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고난만 바라보면, 영광이 안보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고난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고난이 있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합니까? 장차 주어질 영광스러움이 있기 때문입니다.(참고 **계2:7**, **계2:10-11**, **계2:17**, **계2:26-28**, **계3:5**, **계3:12**, **계3:21**) 이 땅의 고난은 잠시이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기는 자에게 주어질 영광은 이 땅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도, 자신의 생을 마감할 때 마지막으로 한 말이 로마서 8:18의 말씀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장차 누릴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잠시 세상의 불편함이 하나님이 주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과 불편 가운데에도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려고 해도 우리가 연약하기에 살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고 합니다.(롬8:26) 우리가 연약하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26절에서 ‘우리의 연약함’이란 무엇입니까? 26절에서 보면, ‘우리의 연약함’이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고난의 상황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자기가 살아온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기 보다는 어떻게든 그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에 집중하기 마련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고난 앞에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눅22:42**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고난 앞에서 고난자체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벗어내기 위해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간구하신다고 합니다.(27절) 그래서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따라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롬8: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다면 여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 답이 29-30절입니다. 29-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만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백성을 영화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완성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성화적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성숙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삶의 변수와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닮은 자리, 즉 성화적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리, 성숙의 자리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고난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섭리적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은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자라가게 하는 삶의 동력입니다.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우리는 정결케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은 성숙입니다. 성숙이 목적인 자는 고난을 감내합니다. 그러나 성공이 목적인 자는 고난과 불편함에 타협합니다. 그러나 진짜 성공은 하나님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자라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십니다. 연약할 때에도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말씀 살펴보기

- 1)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살면서 필연적으로 고난과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 2) 바울이 제시하는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고난과 불편함을 감수하는(이기는) 두 가지 방안이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말씀 나누며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자신의 삶 가운데 합력하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